

황제를 살린 영적황제 -세계 램네티리더수련회 메시지-

창세기 41:38

이현규 목사님

* **창41:38**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주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게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12가지 문제 속에 오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보내 주셔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화해죄와 조상의 죄, 모든 죄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여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참사랑 성도들이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전 세계 237개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릴 만큼 영적으로 성장하여 영적황제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거룩한 주일에 드려지는 모든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게 하시며, 영육 간의 모든 부분이 완전히 치유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과 문제가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를 허락하신 절대계호와 절대미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강단에서 선포된 많은 말씀 가운데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성취될 언약의 레마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체험하여 말씀성취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어가는 말씀

담임목사님께서는 현재 아르메니아 선교캠프 중에 계신다. 9월 24일 목요일에 귀국하시기까지 남은 캠프의 여정을 위해 계속 기도를 부탁한다. 담임목사님께서는 선교캠프에 가시기 전에 이번 강단을 맡겨 주셨다. 약 3년 전에 한 번 대예배 강단에 섰고, 오늘 다시 3년 만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 평소 유치부를 맡고 있어 오늘 대예배 성가대의 라이브 찬양도 오랜만에 현장에서 듣게 되었다. 영상으로 듣는 것과 현장에서 직접 듣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 오늘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오늘은 지난 7월 말에 있었던 세계 램네티리더수련회의 메시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한다. 전체 주제는 ‘황제를 살린 영적황제’이며, 본론은 창세기 41장 38절이다. 이 말씀을 한 주간 굳게 붙잡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성도와 후대 램네티가 이 시대의 황제를 살리는 영적황제로 서기를 바란다. 하나님께서 주신 300%의 능력을 힘입어 나와 현상이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기를 소망한다. 먼저 영적황제가 누구인지, 어떻게 세상의 황제를 살렸는지, 이 시대의 영적황제는 누구이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서론 - 영적황제

1. 영적황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황제, 곧 왕이다.

세상의 황제는 사람이 세운 자리와 지위에 의해 결정되지만, 영적황제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맡기신 사명을 가진 영적인 왕을 의미한다. 세상의 황제는 왕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나야 하지만 영적황제는 누구나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알고, 하나님께서 지금 가장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며, 하나님과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이 영적황제이다.

1) 영적황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한다. 영적황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마귀의 주인과 왕으로 모신 사람이다. 그리스도는 “기름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며,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왕의 직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담당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참 선지자이며,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시는 참 제사장이며, 사탄의 일을 꺾으신 참 왕이다. 예수님은 영적황제는 것은 마귀의 문을 열고 그분을 주인과 왕으로 모신다는 뜻이다. 그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된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흑암의 권세를 격파하시고, 천군천사를 파송하시고 하늘의 시민권이라는 배경을 주신다. 또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성취해 가신다. 그리스도께서 참 왕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는 왕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왕의 자녀가 바로 영적황제이다.

2) 영적황제는 어두운 현장을 살릴 빛의 망대의 사명을 가진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한다. 우리는 본래 흑암 가운데서 방황하고 고통받던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택하신 족속과 왕 같은 제사장이자 거룩한 나라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다. 이제 창조의 빛과 근원적인 빛과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이 되어 현장에 빛의 망대가 되어야 한다. 아름다운 덕, 곧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여 어두운 현장과 세상의 지도자들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3) 영적황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룩한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한다. 우리는 세상에 섞여 살아가지만 세상과 현장과 지도자들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보내신 사람이요(레20:26),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씀한다. 그러므로 영적황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다. 요셉도 바로가 인정할 만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고,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은 후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삼상16:13).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해야 맡겨진 사

명을 감당할 수 있다(행1:8).

2. 영적황제는 세상의 황제를 살렸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세상 황제와 왕들은 영토를 넓히고 부를 축적하고 군사력을 키우며 왕위를 오래 유지하는 데 집중했다. 그 결과 전쟁과 약탈과 착취와 억압이 따라왔다. 사탄의 방법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램네티들은 다른 방식으로 왕들과 강대국을 살렸다.

1)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붙잡은 요셉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다. 요셉은 이 언약을 붙잡았고, 그를 통해 당시 최강대국 애굽이 살아나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성취되었다.

2) 피 제사의 언약을 붙잡은 모세 요셉 이후 400년 동안 복음의 증거가 희미해졌지만 모세가 피 제사의 언약을 붙잡고 일어났다. 구약의 수많은 짐승의 제사와 피 제사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짐승의 피 자체가 죄를 완전히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보게 하는 표지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와 구원의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다.

3) 사무엘과 다윗 사사기 시대에 14명의 사사가 다스리는 동안 복음은 점점 희미해졌다. 그때 사무엘과 다윗이 일어났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사무엘이 기름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붙었더니 이 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라고 말씀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왕을 준비하셨다.

4)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 언약을 가진 다니엘과 세 친구와 에스더가 일어났다.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강대국의 흐름이 바뀌는 가운데서도 이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그 현장을 살렸다.

5) 바울과 전도팀 약 700년 동안 복음이 희미해진 시대에 바울과 전도 팀이 일어났다. 바울의 전도여행을 통해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제자가 일어났으며,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고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고침을 받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다.

이처럼 요셉, 모세, 사무엘과 다윗,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 바울과 전도 팀이 황제를 살린 영적황제였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이 비밀을 이미 보여주셨다.

3. 지금 이 시대와 현장의 황제를 살릴 영적황제는 바로 ‘나’이다.

성경 속 인물들은 이미 지나간 역사 속에서 왕들과 강대국을 살렸다. 이제 우리는 이 시대의 황제와 복음이 없고 영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살려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다. 참사랑의 모든 성도와 후대 램네티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부르시고 찾으시는 영적황제로 그 길을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기 바란다.

본론

영적황제의 길을 가기 위해 우리가 준비하고 붙잡고 누려야 할 것이 다섯 가지 300%이다. 말씀, 기쁨, 열, 배경, 타임의 300%를 통해 모든 현장을 살리고 정복해야 한다.

1. 말씀 300% - OURS(Only, Uniqueness, Recreation)

1) 나의 과거를 통해 복음에 대한 ‘오직’을 찾아야 한다. 과거를 돌아보면 ‘오직’이 발견된다. 많은 사람이 과거의 영광보다 과거의 상처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나 상처에 갇혀 있거나 과거의 수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감당하기 어렵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툇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라고 말씀한다. 우리도 과거의 상처와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고 뛰어넘어야 한다. 부모님과 가정의 갈등, 교회와 나라의 상황, 주변 환경과 배경, 사탄의 틀과 울무와 함정에 속지 말고 지금의 수준을 뛰어넘는 오직의 답을 찾아야 한다. 바로 그 오직은 복음이다. 그냥 그리스도자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이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시며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다. 오직 하나님 나라가 내 안과 현장과 가정에 임하도록 기도해야 하며, 오직 성령충만과 오직 기도와 오직 언약을 붙잡아야 한다. 이것을 붙잡으면 한마디로 게임이 끝난다. 이미 승리했고 우리는 그 승리의 여정을 확인해 가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완전하게 끝내셨다는 사실을 붙잡아야 한다.

2) 나의 현재를 통해 복음의 ‘유일성’을 가지면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난다. 오직을 찾고 붙잡으면 ‘유일성’을 가지게 되고, 그 유일성이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난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한다. 하나님은 유일한 신 하나님이다. 사도행전 4장 12절도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라고 말씀한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며 유일한 구원자이다. 이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절대미션, 곧 나만 할 수 있도록 맡기신 현장을 발견하고 실천해야 한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담을 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을 때 매일 말씀의 성취가 보이기 시작한다. 이것을 강단의 제자와 강단메시지의 성취라고 한다. 성도는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며 강단말씀의 증인으로 서야 한다.

3) 나의 미래를 통해 ‘재창조’의 역사가 나타난다. 오직과 유일성을 계속 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통해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신다. 현장의 지도자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영적인 사실을 알게 된다. 요셉과 다윗은 형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과 미래를 본 것이다. 우리는 1초 앞의 미래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관통하여 보고 계신다. 그러므로 보좌의 망대가 세워지고, 보좌의 여정을 가며, 보좌의 이정표를 세우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히든카드인 램네티에게 비밀을 알리시고 현장 곳곳에서 7포인트의 제자를 만나게 하신다.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흠어진 자, 파수꾼, 정탐꾼, 기를 든 자로 살아가야 한다. 여호수아 동안 우리가 계속 외치고 찬양하며 고백했던 것처럼,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처럼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으시길 바란다.

2. 기도 300% - WIOS(With, Immanuel, Oneness)

1)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나를 정복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 우리 안에 이미 다른 생각과 욕심이 가득하다. 창세기 3장의 나 중심, 창세기 6장의 네피림과 물결, 창세기 11장의 바벨탑과 성공의 각인을 완전히 정복해야 한다. 사탄은 우

리 안에 집(마12:25-26)을 짓고 견고한 요새(고후10:4-5)를 만들기 때문에 그 진을 무너뜨려야 한다. 답은 내 안의 주인을 바꾸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한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용하여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으면 다른 사탄의 것이 들어올 틈이 없어진다. 우리의 잘못된 영적 DNA와 각인과 뿌리와 체질도 예수 그리스도로 정복될 때 변화된다. 이것이 With의 기도 300%이다.

2)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며 기도를 정복해야 한다.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뜻이다. 보좌의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 곧 7.7.7의 모든 내용도 결국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연결된다. 많은 사람이 복과 건강과 병의 치유만을 구한다. 그러나 병이 낫거나 낫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성도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지금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묻는 기도를 해야 한다. 하루에는 아침과 낮과 밤이 있다. 아침에는 하루를 준비하며 우주를 정복하는 기도를 드리고, 낮에는 만남과 업의 현장에서 세계를 정복하는 기도를 드리며, 밤에는 미래의 작품을 만들고 미래를 정복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 기도는 시간간을 초월하고 보좌를 움직인다. 기도할 때 후암세력이 결박되고 천군천사가 동원된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며 빼앗긴 기도를 정복해야 한다.

3) ‘Oneness’로 함께하시는 하나님과 기도의 삶을 정복해야 한다. 기도의 삶을 정복한다는 것은 기도가 생활화되고 체질화되고 습관화되는 것이다. 기도가 삶이 되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해 모든 답을 찾는 것이다. 주일예배를 드린 후, 다음 주일까지 6일 동안의 삶에서 응답이 보일 때까지 강단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러면 말씀의 흐름과 기도의 흐름과 현장의 흐름과 전도의 흐름과 세계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한다. 같은 현장이라도 오늘과 내일은 다르다. 오랫동안 아무 일도 없던 곳에서도 갑자기 새로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흐름을 보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

3. 업 300% - AWHs(Always, With, Healing)

1)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시는 교회경제를 통해 먼저 교회를 살려야 한다. 세상은 시장경제와 계획경제와 혼합경제와 지하경제가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영적 인 경제는 ‘빛의 경제’이다. 빛의 경제는 생명을 구원하고 살리는 데 필요한 재료와 물질을 의미한다. 교회도 진도하고 생명을 살리고 세계선교를 하기 위해 경제적인 응답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참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빛을 비추는 교회를 살려야 한다. 우리나라는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에 복음이 들어왔고 부흥운동을 통해 여러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 이후 전도운동이 확산되어 한국의 기독교인도 증가했고 세계 여러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다. 오늘의 한국이 있기까지 교회의 기도와 헌신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우리 참사랑교회도 지난주 창립 59주년을 맞았다. 정직한 교회설립일은 9월 17일이며, 내년이면 60주년을 맞는다. 이제 앞으로 100년의 응답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후대 램프를 영적황제로 세워야 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교회와 교회경제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2) ‘With’경제를 통해 나의 학업과 산업을 300%로 만들어야 한다. 램프가 발견하고 붙잡은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는 결국 경제력으로 연결된다. 램프는 앞으로의 전문성과 산업현장을 위해 학업을 준비하며, 산업에 있는 종직자는 자신의 업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선교사로 파송받은 사람이다. 복음과 생명살림이 주업이고, 학업과 산업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현장을 감당하는 중요한 통로이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7년의 흉년 뒤에 올 흉년을 대비하여 애굽의 경제력을 크게 키웠다. 다윗도 With, Immanuel, Oneness의 기도를 누리며 성전건축을 준비했고 은 이스라엘이 자원하여 예물을 드렸다(역대상 22장, 29장).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하기 위해 주변 나라에서 보물과 재물을 가지고 찾아왔다. 우리도 자신의 학업과 산업을 300%로 만들어 복음과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용해야 한다. 빌립보서 4장 19절의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는 약속을 붙잡아야 한다. 그리고 말라기 3장 10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라고 말한다. 우리의 작은 헌신, 작은 중심에 하나님의 쌓을 곳이 없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겠다.

3) ‘Healing’경제로 사람과 왕들과 위기의 현장을 살려야 한다. 경제를 통해 모든 것을 살리려면 먼저 사람이 살아야 한다. 램프 7명은 영적황제로서 왕들과 위기의 현장을 살렸다. 요셉은 가는 곳마다 보디발의 집에 복을 가져왔고, 간수장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이후 총리가 되어 애굽과 바로 왕을 살렸다. 바로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라고 고백한 것이 오늘의 본문이다. 영적황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다. 어디를 가든 Always, With, Healing의 경제축복을 받길 바란다.

4. 배경 300% - HTES(Heavenly, Thronely, Eternally)

1) 우리의 배경은 ‘Heavenly’이다. Heavenly는 ‘하늘과 공중’을 의미한다. 빌립보서 3장 20절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라”고 말한다. 우리의 시민권과 배경은 하늘에 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은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 말한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라고 하셨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과 천국의 배경을 가진 존재이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고자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 에베소서 2장 2절은 사탄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다고 말씀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싸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주시는 힘을 얻고 달란트와 미션을 발견해야 한다. 이것이 Heavenly Power, Heavenly Talent, Heavenly Mission이다.

2) 우리의 배경은 ‘Thronely’이다. Thronely는 하늘보좌를 의미한다. 이사야 6장과 요한계시록 4장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보좌의 모습이 나타난다. 하나님께서는 보좌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고 역사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권세를 꺾으셨다. 하나님께서는 보좌의 망대, 곧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시고 보좌의 여정, 곧 하나님 나라의 길을 가게 하시며, 보좌의 이정표, 곧 오직 성령의 역사를 이루신다.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성도에게 권능을 주시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하신다는 약속을 붙잡아야 한다. 나의 현장에서 보좌의 배경을 충만히 누리고 승리 하길 바란다.

3) 우리의 배경은 ‘Eternally’이다. 우리는 영원의 시간표를 향해 가고 있다. 지금의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으며, 영원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하나님께서는 영세 전과 창세 전부터 우리에게 답과 비밀을 주셨다.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의 나와 네 피땀과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정복할 답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오직 성령이다. 이 힘은 세세무궁하도록 우리에게 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복음의 비밀이 이제 나타났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배경은 Heavenly, Thronely, Eternally이다.

5. Time 300% - 24, 25, 영원

1) ‘24’의 삶을 가지고 영적황제의 시간을 날마다 누리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 하루 24시간이 동일하게 주어진다. 매일 주어진 시간과 현장에서 기도에 집중해야 한다. 기도가 생활화되고 체질화될 때까지 도전해야 한다. 아침에는 우주를 정복하는 기도, 낮에는 세계를 정복하는 기도, 밤에는 미래를 정복하는 기도를 누리야 한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라고 말한다. 과거는 이미 지나고도 되돌릴 수 없다. 지금까지 구하지 못했더라도 지금 당장 구하고 집중하면 된다. 힘이 빠지면 다시 힘을 얻고 달려가야 한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해야 한다.

2) ‘25’는 하나님의 시간표의 응답이다. 하나님의 25의 시간표는 우리의 영역을 넘어선 하나님의 영역이다. 계속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온다. 그러나 응답이 온다고 성공자가 되고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실패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영적황제라는 정체성과 배경은 변하지 않는다. 오히려 어려움과 문제와 위기가 더 큰 축복이 될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강하게 연단하셔서 더 큰 일을 맡길 수 있기 때문이다.

3) 우리는 ‘영원’한 작품과 기념비를 남기는 여정 속에 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호흡을 기도로 바꾸면 영과 혼과 뇌와 몸이 살아난다.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기보다 먼저 내가 바뀌어야 한다. 내 영적 상태와 호흡이 바뀌면 현장의 흐름도 달라질 수 있다. 성도는 다른 사람의 문제만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매일의 하루하루가 쌓여 영원한 작품과 기념비가 된다. 이것이 영적황제의 Time이다.

결론

오늘 전달한 말씀 300%, 기도 300%, 업 300%, 배경 300%, Time 300%는 영적 황제가 가는 길에서 붙잡고 누리고 응답받아야 할 중요한 열쇠이다. 중요한 것은 이 다섯 가지를 시스템으로 만드는 것이다. 각 단어 의미의 ‘S’가 시스템을 의미한다. 시스템이 없으면 말씀을 들어도 금방 잊어버리고 망가져 무너진다. 기초공사가 부실하면 얼마 가지 못해 무너지듯이, 우리의 삶에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노아가 방주에 역량을 발라 물이 새지 않게 했던 것(창6:14)처럼 우리도 날마다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 이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고(창12:7-8, 13:18), 다윗은 홀로 목동으로 있을 때 기도의 비밀을 누렸으며,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간 현장에서도 하루에 세 번씩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단6:10). 결국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성취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다. 성경 속 인물들이 특별히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의 대열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비밀을 붙잡았다. 우리도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 안에 머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나만의 시스템을 세워야 한다.

1. 다섯 가지 300%가 내 영혼 속에 Textbook으로 담겨야 한다. Textbook은 교과서라는 뜻이다. 우리에게 영적인 교과서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다. 매주 강단과 예배를 통해 한 주간 붙잡은 말씀을 받고, 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만나를 받아야 한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한다. 창조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과 치유의 말씀이다. 우리의 생각과 뜻도 바꾸실 수 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전 세계의 황제를 살리는 주역이 되길 바란다.

2. 다섯 가지 300%가 내 삶 속에 Handbook으로 담겨야 한다. 핸드북은 옛날에 손에 들고 다니던 작은 수첩을 의미한다. 어린 시절 할아버지가 작은 수첩에 사람들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가나다순으로 빼곡하게 적어 와이셔츠 주머니에 넣을 정도로 작아 보였지만 기억이 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늘 가까이 두는 삶이다. 다섯 가지 300%가 삶 속에 들어있다는 것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는 뜻이다. 불신자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과 예배 없이 살아가갈 수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말씀한다. 매일 매시 매사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말씀에 붙잡혀 살아야 한다. 복의 근원으로 서야 한다.

3. 다섯 가지 300%가 내 미래에 Notebook으로 담겨야 한다. Notebook은 다섯 가지 300%가 미래 속에 완전히 각인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말씀으로 역사하고 인도하셨고, 우리 교회 역시 59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다. 이제 우리는 미래와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향해 가고 있다. 영적황제의 메시지가 깊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이 되어야 한다. 단순회 노트에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영혼과 심령이 말씀으로 충만해야 한다.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밝이오니”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둠이 아닌 빛으로, 살리는 현장으로 계속 인도하시는 줄 믿기 바란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는 교회와 현장과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이 시대의 황제를 살릴 영적황제로 부르셨다. 한 주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과 오력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든 성도와 후대 램프가 되기를 바란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단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언약과 뜻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 300%, 기도 300%, 업 300%, 배경 300%, 타임 300%에 붙잡고 가는 영적황제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방해하는 모든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결박되고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영혼과 삶과 미래 속에 300%가 텍스트북으로, 핸드북으로, 노트북으로 담기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